

현안과 과제

■ 2018년 남북정상회담 주요의제
- 이산가족 대규모 상봉 정례화 필요하다

목 차

■ 2018년 남북정상회담 주요의제

- 이산가족 대규모 상봉 정례화 필요하다

Executive Summary	i
1. 개요	1
2. 이산가족 상봉 현황	2
3. 이산가족 상봉 재개의 필요성	4
4. 시사점	7

□ 비상업 목적으로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할 경우 내용의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괄 : 이 부 형 이 사 대 우 (2072-6306, Leebuh@hri.co.kr)

□ 통일연구센터 : 이 용 화 연 구 위 원 (2072-6222, yhlee@hri.co.kr)

 이 해 정 연 구 위 원 (2072-6226, hjlee@hri.co.kr)

Executive Summary

< 요약 >

■ 개요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 가운데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가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및 2000년·2007년 남북 정상회담 합의문에 모두 포함되는 등 남북 간 핵심 논의사항이었다. 한편 2018년 3월 31일 기준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13만 1,531명 가운데 사망자가 56.0%(7만 3,611명)에 달해 생존자(5만 7,920명, 44.0%)를 크게 넘어섰고, 특히 **고령화로 1년 사이 약 3,700명이 사망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이산가족 상봉 현황을 살펴보고,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 이산가족 상봉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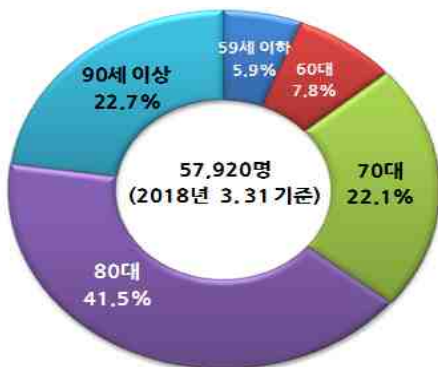
이산가족 상봉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확대되었고, 지난 18년간 모두 20차례에 걸쳐 당국 차원에서만 총 2만 3,676명(방북+방남+화상 상봉)의 이산가족이 상봉하였다. 그러나 2008년 이후부터 남북관계 경색과 북한의 거부 등으로 상봉자수는 2014년 813명, 2015년 972명에 불과했고, 2016~2018년 3월까지 전무한 상황이다.

■ 이산가족 상봉 재개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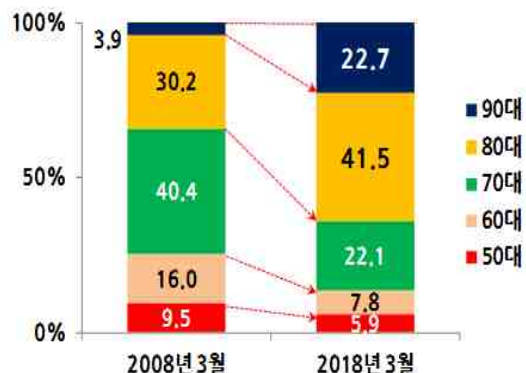
1) 고령층 급속 증가

2018년 3월 말 기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등록된 이산가족 생존자 가운데 70대 이상의 이산가족 1세대가 전체의 86.3%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10년 전인 2008년 3월과 비교할 때, 80대 이상의 고령층 비중이 2008년 34.1%(3만 1,206명)에서 2018년 3월 64.2%(3만 7,198명)로 약 30.0%p 증가한 상황이다.

< 이산가족 생존자의 연령별 분포 >



< 이산가족 생존자의 고령화 추이 >



2) 상봉 못하고 사망하는 이산가족 증가

이산가족 사망자는 연평균 3,600명 수준이며, 상봉 기회를 갖지 못하고 사망하는 이산가족은 연평균 2,400명에 달한다. 특히, 2008년 이후 남북관계 경색으로 이산가족 상봉이 정체된 반면, 사망자 누적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와 대규모 상봉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3) 고령 이산가족들을 위한 대규모 상봉 필요

첫째, 2000~2015년 간 실시된 20차례의 당국 차원의 대면상봉 평균인원(647명) 기준으로 볼 때, 생존자 전원 상봉을 위해선 약 90회의 상봉 행사가 요구된다. 특히 상봉 시한이 임박한 90세 이상(13,167명)의 초고령층의 경우 생존자 전원 상봉에 비해 비교적 적은 약 20회 수준으로 예상된다. 둘째, 2003년 최대 상봉인원(제6~8차, 남측만 해당, 1,738명) 기준으로는, 생존자 전원 상봉은 약 33회, 90세 이상 초고령층은 약 8회의 상봉 행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생애 상봉기한이 임박한 90세 이상의 경우에는 남북 간 상봉 재개 합의 과정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이산가족 생존자의 생애상봉을 위한 예상 상봉 횟수 >

구분	가정 1. 평균 차수당 상봉 기준(647명)	가정 2. 2003년 상봉 기준(1,738명)
생존자 전원(57,920명)	약 90회	약 33회
80~90세 이상(37,198명)	약 57회	약 21회
90세 이상(13,167명)	약 20회	약 8회

자료 : 대한적십자사의 이산가족백서(2016년)를 활용해 현대경제연구원이 재구성.

- 주1) 정부차원의 이산가족 상봉, 남측 이산가족 상봉자(가족포함) 기준임.
- 2) 평균 차수당 상봉 기준은 2000~2015년 간 실시된 20차 대면상봉의 평균인원임.
- 3) 2003년 상봉 기준은 6차(560명), 7차(582명), 8차(596명)의 합계기준임.
- 4) 화상상봉, 민간차원의 상봉, 기존 당국차원의 상봉 경험은 고려하지 않음.
- 5) 대한적십자사의 이산가족 선정과정은 고려하지 않고 계산하였음.

■ 시사점

2018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3년 여간 개최되지 못하고 있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정상간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 **(Junction : 연결점)** 상봉의 정례화와 대규모 상봉 등 다양한 상봉 방안을 모색하여 이산가족 상봉이 남북 간 연결점(Junction)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Ordinary Meeting : 상시적인 만남 추진)**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를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Infrastructure : 상봉 인프라 구축)** '이산가족 상봉 인프라' 구축으로 다양한 상봉 방식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Numerous ways : 다양한 방식 활용)** 대면 상봉 이외에도 생사 확인, 화상 상봉 실시, 서신 교환의 상시화 등 다양한 상봉 방식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1. 개요1)

-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이산가족²⁾ 상봉 정례화가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
 -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및 2000년·2007년 남북 정상회담 합의문에 모두 포함되는 등 남북간 핵심 논의사항임
 - 문제인 정부는 이산가족 신청자의 전면 생사확인·상봉 정례화·교류 제도화 추진을 국정운영 5개년계획에 포함(2017년 7월)
 - 특히, 이산 1세대³⁾의 상봉 가능 시기는 사실상 이번 정부가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있어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는 시급히 논의되어야 할 과제임
 - 한편 2018년 3월 31일 기준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13만 1,531명 가운데 사망자가 56.0%(7만 3,611명)에 달해 생존자(5만 7,920명, 44.0%)를 크게 넘어섬
 - 2016년 2월 최초로 이산가족 사망자 비율이 생존자 비율을 역전했고, 2018년 3월 31일 기준 사망자 비율은 56.0%에 달함
 - 특히 고령화로 1년 사이(2017년 3월 31일, 6만 9,850명) 약 3,700명이 사망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산가족 상봉 현황을 살펴보고,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함

< 남북간 이산가족 관련 주요 합의 >

남북간 합의	주요 내용
남북기본합의서 (1991.12.13)	제18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6.15 남북공동선언 (2000.6.15)	제3항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2007.10.4)	제7항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의 상봉을 확대하며 영상 편지 교환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금강산면회소가 완공되는데 따라 쌍방 대표를 상주시키고 흩어진 가족과 친척의 상봉을 상시적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자료 : 보도를 참고해 현대경제연구원 구성.

- 1) 본 보고서는 이용화·이해정, “이산가족 상봉 현황과 시사점“, 『VIP REPORT』 17-30 (통권 703호) 2017. 09. 25 보고서를 수정·보완한 것임.
- 2) 이산가족이란 이산의 사유와 경위를 불문하고, 현재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 "남한")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으로 흩어져 있는 8촌 이내의 친척·인척 및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를 말함.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참조.
- 3) 1953년 7월 27일 휴전 이전에 북한에서 월남한 자와 남한에서 월북한 자의 당시 가족으로 정의.

2. 이산가족 상봉 현황

○ (상봉 추이) 2000년 당국 차원의 상봉을 계기로 점차 활성화 되었으나, 2008년 이후에는 당국과 민간 차원에서 모두 큰 폭으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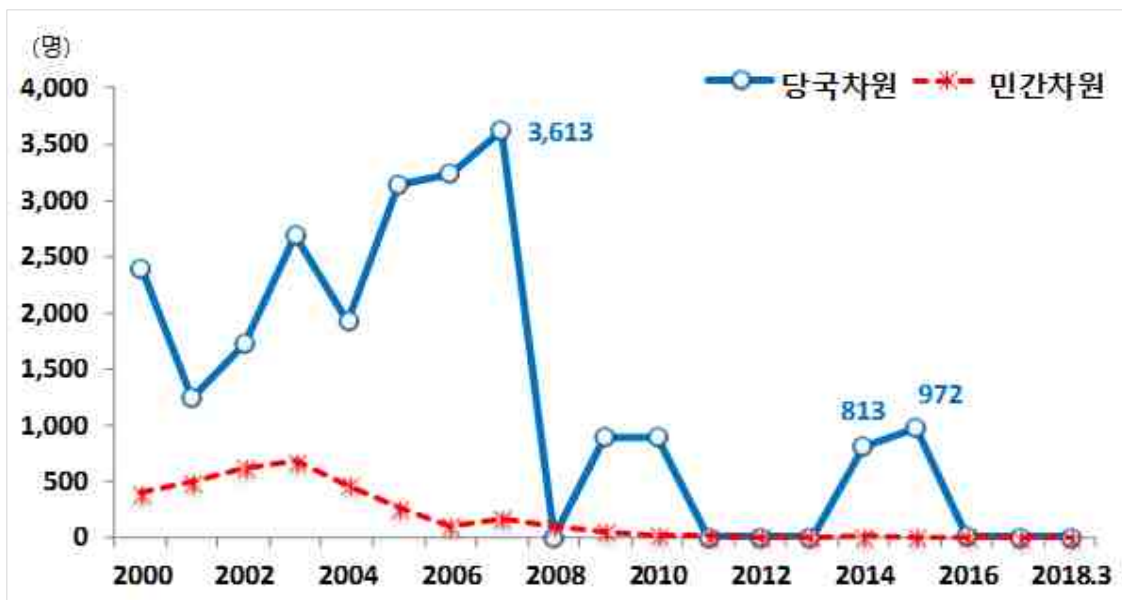
- 당국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은 지난 18년간 모두 20차례에 걸쳐 진행됐으며, 총 2만 3,676명(방북+방남+화상 상봉)의 이산가족이 상봉

-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활성화되어, 해마다 2~3차례의 상봉 행사를 통해 이산가족 상봉 숫자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
- 특히 2005년 도입된 화상 상봉은 2007년까지 총 3,748명의 상봉 기회를 제공하여, 이산가족 상봉 확대에 크게 기여(2005~2007년까지 화상 상봉은 전체의 37.5%)
- 그러나 2008년 이후 남북관계 경색과 북한의 거부 등으로 상봉자수는 2014년 813명, 2015년 972명에 불과했고, 2016~2018년 3월까지 전무한 상황

-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은 1990년부터 꾸준히 이루어져왔으나, 2008년 이후 급감하는 추세

- 2000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던 민간 상봉은 2004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2015년 4명, 2016년 8명, 2017년 2명에 불과한 수준

< 이산가족 상봉 추이(2000년~2018년 3월) >



자료 : 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을 토대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주 : 당국 차원의 상봉자는 화상상봉을 포함.

○ (상봉 현황) 이산가족 상봉은 당국과 민간 차원에서 동시에 이뤄져왔으며, 당국 차원의 교류가 민간 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

- 당국 차원에서 이산가족 상봉은 1985년~2017년까지 대면 상봉과 화상 상봉을 합쳐 총 4,742건 성사되었으며, 2만 3,676명이 상봉함
 - 1985년에 남북한 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 공연단 교환 실시로 총 65 가족, 157명의 이산가족이 상봉함
 -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 이산가족 상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현재까지 대면상봉은 총 4,186건(1만 9,930명)이 이뤄졌으며, 화상상봉은 2005년에 처음 시작되어 총 557건(3,748명)이 성사됨
 - 민간차원의 상봉은 1990년부터 시작되어 총 1,755건(3,416명)이 성사
- 당국 차원에서의 상봉 비중이 민간 차원의 상봉보다 훨씬 높게 나타남
 - 당국 차원의 상봉은 전체 상봉 건수 기준으로는 73.0%, 인원 기준으로는 87.4%를 차지
 - 이는 민간 차원에서의 상봉이 대부분 소규모로 이뤄지는 데다가, 특히 북한 가족이 제3국으로 나올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
 - 특히, 2005년에 정부에 의해 도입된 화상 상봉은 2007년까지 총 3,748명의 이산가족 상봉 기회를 제공했지만, 2008년 이후 다양한 이유로 사실상 중단

< 남북 이산가족 상봉 현황(1985년~2018년 3월) >

구분	당국 차원		민간 차원	합계
	방북상봉	방남상봉		
대면상봉	3,854건 (17,228명)	331건 (2,700명)	1,755건 (3,416명)	5,940건 (23,344명)
화상상봉	557건 (3,748명)		—	557건 (3,748명)
합계	4,742건 (23,676명)		1,755건 (3,416명)	6,497건 (27,092명)
비율	73.0% (87.4%)		27.0% (12.6%)	100.0%

자료 : 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을 토대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주 : 비율의 ()내는 인원 기준임.

3. 이산가족 상봉 재개의 필요성

1) 고령층 급속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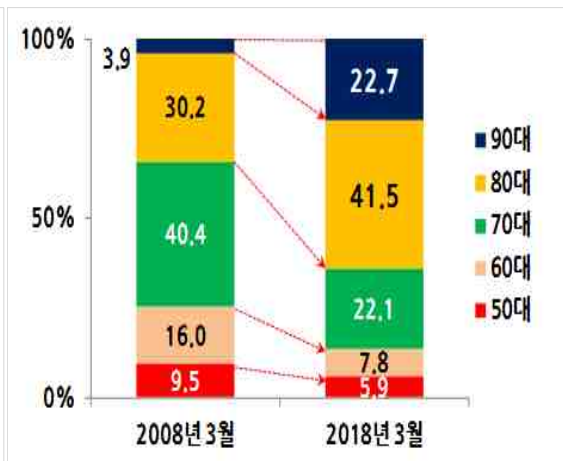
○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의 연령 분포상, 고령층의 비율이 높고, 고령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 중

- 2018년 3월 말 기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등록된 이산가족 생존자 가운데 70대 이상의 이산가족 1세대가 전체의 86.3%를 차지
 - 연령층별로는 이산가족 1세대로 분류되는 80대가 41.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초고령층인 90세 이상이 22.7%, 다음으로 70대(22.1%) 순임
 - 주로 이산가족 2세대인 60대 이하의 비율은 13.7%(59세 이하 5.9% + 60대 7.8%)에 불과함
- 10년 전인 2008년 3월과 비교할 때, 80대 이상의 고령층 비중이 2008년 34.1%(3만 1,206명)에서 2018년 3월 64.2%(3만 7,198명)로 약 30.0%p 증가
 - 70대 이하의 이산가족 생존자 비중은 2008년 65.9%(6만 204명)에서 2018년 3월 말 기준 35.8%(2만 722명)로 크게 감소
 - 반면 80대 이상의 이산가족 생존자 비중은 동기간 34.1%(3만 1,206명)에서 64.2%(3만 7,198명)로 크게 증가
 - 특히 생애 상봉시한이 임박한 90세 이상의 생존자 비중이 동기간 3.9%(3,588명)에서 22.7%(1만 3,167명)로 약 19.0%p 증가

< 이산가족 생존자의 연령별 분포 >



< 이산가족 생존자의 고령화 추이 >



자료 : 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을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이 재구성.

2) 상봉 못하고 사망하는 이산가족 증가

○ 이산가족 사망자는 연간 약 3,600명에 달하며, 상봉 기회를 갖지 못하고 사망하는 이산가족은 연 2,400명에 달함

- 이산가족 사망자의 비율은 증가하나, 상봉률은 이에 미치지 못하여 매년 2,400명에 달하는 이산가족들이 상봉하지 못한 채 사망
 - 2004년~2018년 3월까지 이산가족 사망자 수가 연간 평균 약 3,600여 명에 달하며, 현재까지의 누적 사망자 비율은 56.0%에 달함
 - 반면 이산가족 상봉자는 2016년 이후에는 전무하다시피 하며, 현재까지의 누적 상봉자 비율은 20.6%(연간 평균 약 1,200여명)에 그침
 - 따라서 상봉하지 못하고 사망하는 이산가족은 매년 약 2,400명 발생
- 특히, 2008년 이후 남북관계 경색으로 이산가족 상봉이 정체된 반면, 사망자 누적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2008년~2018년 3월까지 이산가족 상봉률은 2.2%p 증가에 불과한 반면, 사망률은 25.4%p 대폭 증가

< 연도별 이산가족 사망자와 상봉 추이(2003년~2018년 3월) >

(단위 : 명, %)

연도	사망자 (누계) (A)	생존자 (누계)	합계 (B)	연간 사망자	사망률 (누계)	상봉자		상봉률 (누계)
						연간	누계(C)	
2003	19,488	103,397	122,885	-	15.9	3,368	10,406	8.5
2004	23,058	100,861	123,919	3,570	18.6	2,396	12,802	10.3
2005	26,945	96,268	123,213	3,887	21.9	3,395	16,197	13.1
2006	28,997	94,933	123,930	2,052	23.4	3,341	19,538	15.8
2007	33,300	93,487	126,787	4,303	26.3	3,780	23,318	18.4
2008	38,926	88,417	127,343	5,626	30.6	97	23,415	18.4
2009	42,123	85,905	128,028	3,197	32.9	939	24,354	19.0
2010	43,990	84,133	128,123	1,867	34.3	904	25,258	19.7
2011	49,776	78,892	128,668	5,786	38.7	14	25,272	19.6
2012	53,943	74,836	128,779	4,167	41.9	6	25,278	19.6
2013	57,784	71,480	129,264	3,841	44.7	5	25,283	19.6
2014	61,352	68,264	129,616	3,568	47.3	823	26,106	20.1
2015	65,134	65,674	130,808	3,782	49.8	976	27,082	20.7
2016	68,512	62,631	131,143	3,378	52.2	8	27,090	20.7
2017	72,307	59,037	131,344	3,795	55.1	2	27,092	20.6
2018.3	73,611	57,920	131,531	1,304	56.0	0	27,092	20.6

자료 : 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을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이 재구성.

주1) 이산가족의 전체 합계가 변동하는 이유는 미등록자의 등록이 추가로 이뤄지기 때문임.

2) 상봉자수는 당국 차원(화상상봉 포함)과 민간 차원의 상봉자를 합한 수치임.

3) 사망률(누계) = 연도별 사망자 누계(A) ÷ 합계(B) × 100.

4) 상봉률(누계) = 연도별 상봉자 누계(C) ÷ 합계(B) × 100.

3) 고령 이산가족들을 위한 대규모 상봉 필요

○ 고령화로 인해 생존 시한이 임박한 이산가족 생존자들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는 물론이고, 대규모 상봉 노력이 시급

- 2000~2015년 간 실시된 20차례⁴⁾의 당국 차원의 대면상봉 평균인원(647명) 기준으로 볼 때, 생존자 전원 상봉을 위해 90회의 상봉 행사가 필요
 - 생존자 전원인 57,920명 전원 상봉을 위해선 총 90회의 상봉 행사가 요구
 - 고령층인 80~90세 이상인 37,198명의 전원 상봉을 위해선 약 57회 수준의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필요함⁵⁾
 - 특히 생애 상봉시한이 임박한 90세 이상(13,167명)의 초고령층의 경우 생존자 전원 상봉에 비해 비교적 적은 약 20회 수준의 상봉 행사가 요구됨
- 2003년 최대 상봉인원(제6~8차, 남측만 해당, 1,738명) 기준으로 볼 때, 생존자 전원 상봉은 33회, 90세 이상 초고령층은 8회 상봉 행사가 필요
 - 생존자 전원을 기준으로 볼 때, 약 33회의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필요
 - 80~90세로 한정된 경우, 약 21회 수준의 상봉 행사가 요구되며, 90세 이상의 경우는 약 8회로 남북 간 상봉 재개 합의 과정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

< 이산가족 생존자의 생애상봉을 위한 예상 상봉 횟수 >

구분	가정 1. 평균 차수당 상봉 기준(647명)	가정 2. 2003년 상봉 기준(1,738명)
생존자 전원(57,920명)	약 90회	약 33회
80~90세 이상(37,198명)	약 57회	약 21회
90세 이상(13,167명)	약 20회	약 8회

자료 : 대한적십자사의 이산가족백서(2016년)를 활용해 현대경제연구원이 재구성.

- 주1) 정부차원의 이산가족 상봉, 남측 이산가족 상봉자(가족포함) 기준임.
- 2) 평균 차수당 상봉 기준은 2000~2015년 간 실시된 20차 대면상봉의 평균인원임.
- 3) 2003년 상봉 기준은 6차(560명), 7차(582명), 8차(596명)의 합계기준임.
- 4) 화상상봉, 민간차원의 상봉, 기존 당국차원의 상봉 경험은 고려하지 않음.
- 5) 대한적십자사의 이산가족 선정과정⁶⁾은 고려하지 않고 계산하였음.

- 4) 2000년 이후 당국차원의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총 20차례 실시됨. 구체적으로는 1~2차(2000년), 3차(2001년), 4~5차(2002년), 6~8차(2003년), 9~10차(2004년), 11~12차(2005년), 13~14차(2006년), 15~16차(2007년), 17차(2009년), 18차(2010년), 19차(2014년), 20차(2015년)임.
- 5) 통계청의 2015년 생명표에 의하면, 세대별 평균 기대여명은 50대가 29.1년, 60대는 20.3년이며, 70대는 12.4년, 80대는 6.6년, 90대는 3.2년임
- 6)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이산가족상봉 선정은 추첨일 전까지 ‘이산가족 정보통합시스템’에 등록된 이산가족찾기 신청자에 한하며 인원은 1차 후보자(고령자 우선, 연령대별 인원 할당) 5배수→ 2차 후보자(건강검진 필요) 2배수→최종후보자(북측에서 회보된 생사확인 명단 기초) 1배수로 결정함.

4. 시사점

- 2018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3년 여간 개최되지 못하고 있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정상간 합의 도출이 필요
 -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와 대규모 상봉이 우선적으로 논의되어야 하며, 다양한 상봉 방식에 대한 고민도 병행
 - 올해에는 6.15(18주년)와 8.15(73주년), 9월 추석 계기 대규모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추진하고, 점차 규모와 횟수를 늘려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Junction : 연결점) 상봉의 정례화와 대규모 상봉 등 다양한 상봉 방안을 모색하여 이산가족 상봉이 남북 간 연결점(Junction)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상봉의 정례화 : 일회성 상봉이 아니라 분기 혹은 격월 등의 일정한 간격으로 상봉을 정례화 하며, 특히 50~70대 이산가족의 경우 정기 상봉을 기본으로 실시하며, 횟수는 점차 늘려가는 방식을 고려
 - 대규모 상봉 : 통상적인 상봉과는 별도로 80대 이상의 평균기대수명을 초과한 이산가족 상봉을 전제로, 단기간 내 대규모 특별상봉을 추진
 - 수시 상봉 : 개별 이산가족의 가정 대소사(혼인, 사망, 생일 등)를 비롯해 남북한 각각 국가명절을 전후해 수시 상봉을 추진
 - 상호 방문 상봉 : 주민접촉 확대와 상호 이질감 완화 차원에서 남한과 북한 지역의 상호 방문과 '체류기간 연장'을 통한 가족 간 연대감 제고 등을 검토
- (Ordinary Meeting: 상시적인 만남)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를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 노력 필요
 -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운영 상시화 : 금강산의 이산가족면회소를 활성화하여, 이곳에서 생사확인 등의 상시정보교환과 정례화 지원체제를 상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금강산 면회소에 상주 인원이 체류할 필요가 있으며, 상봉 정례화 및 교류 확대가 정착될 경우 제2면회소의 건립 추진도 고려

-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를 위한 이벤트 기획 : 전후 세대(특히 청소년)들과 국제적 관심 제고 차원에서 사진전, 기념우표 발행, 청소년들의 영상편지 자원봉사 참여 등의 이벤트를 기획
- (Infrastructure : 상봉 인프라 구축) '이산가족 상봉의 인프라' 구축으로 다양한 상봉 방식을 지원
 - 전면적 생사 확인 시스템 구축 : 남북 간 합의를 통해 '남북한 이산가족정보 통합시스템'을 구축, 이산가족의 생사 여부에 대한 상시정보교환 체계를 수립
 - 당국 차원의 서신 교환 제도화 : 남북관계와 상관없이 서신 교환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한편, 대면 상봉 없이도 자유롭게 이산가족 간 우편물을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모색
 - 과거 서독 정부는 서독 주민들로 하여금 우편을 통한 교류뿐 아니라 인적 왕래를 통한 물품 직접 전달, 면세점 등을 통한 동독 주민에 대한 지원을 허용
 - 화상 상봉장 재개 및 확대 : 남북에 설치된 20여개의 화상 상봉장을 재개하는 한편, 장비·통신망 등을 점검·지원
 - 북한 이산가족의 경우, 화상 상봉을 위해선 평양 고려호텔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남북이 합의를 통해 화상 상봉장을 추가 설치할 필요가 있음
- (Numerous ways : 다양한 방식) 대면 상봉 이외에도 생사 확인, 화상 상봉 실시, 서신 교환의 상시화 등 다양한 상봉 방식이 필요
 - 북한 내 이산가족 생사 확인 : 본격적인 이산가족 상봉에 대비해 북한에 거주 중인 이산가족에 대한 생사 확인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
 - 서신 교환의 상시화 : 2003년 이후 중단된 당국 차원의 서신교환을 재개
 - 화상 상봉 실시 : 고령화로 거동이 불편한 이산가족이 상당수임을 고려할 때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대면상봉보다 용이한 화상 상봉을 실시
 - 기 상봉자에 대한 재상봉 기회 확대 차원에서 이들의 화상 상봉도 적극 추진

이용화 연구위원 (2072-6222, yhlee@hri.co.kr)

이해정 연구위원 (2072-6226, hjlee@hri.co.kr)

< 참고 > 2000년 이후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개최 현황(당국차원의 대면상봉 기준)

구분	기간	장소	상봉인원
제1차	2000.8.15~18	서울, 평양	1,172명(南 853, 北 319)
제2차	2000.11.30~12.2		1,222명(南 868, 北 354)
제3차	2001.2.26~28		1,242명(南 899, 北 343)
제4차	2002.4.28~5.2	금강산면회소	849명(南 565, 北 284)
제5차	2002.9.13~18		875명(南 554, 北 321)
제6차	2003.2.20~25		850명(南 560, 北 290)
제7차	2003.6.27~7.2		899명(南 582, 北 317)
제8차	2003.9.20~25		942명(南 596, 北 346)
제9차	2004.3.29~4.3		969명(南 633, 北 336)
제10차	2004.7.11~16		957명(南 620, 北 337)
제11차	2005.8.26~31		908명(南 579, 北 329)
제12차	2005.11.5~10		903명(南 584, 北 319)
제13차	2006.3.20~25		907명(南 568, 北 339)
제14차	2006.6.19~30		1,176명(南 1,110, 北 666)
제15차	2007.5.9~14		910명(南 584, 北 326)
제16차	2007.10.17~22		831명(南 518, 北 313)
제17차	2009.9.26~10.1		888명(南 554, 北 334)
제18차	2010.10.30~11.5		886명(南 573, 北 313)
제19차	2014.2.20~25		813명(南 497, 北 316)
제20차	2015.10.20~26		972명(南 643, 北 329)
합계			19,771명(南 12,940, 北 6,831)

자료 : 대한적십자사, 『이산가족70년 : 이산가족백서』, 2016.9, pp. 354~358 정리.